삼성, KIA 격파… kt와 한국시리즈 격돌

플레이오프 최종 5차전 6-1
'시리즈 2승' 후라도 MVP
김지찬 3안타·3타점·3득점
김도영 4타수 무안타 침묵


삼성 원태인이 경기를 마무리 짓고 포수 강민호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가 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올랐다.

삼성은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최종 5차전에서 아리엘 후라도의 호투 속에 장단 11안타를 몰아쳐 KIA 타이거즈를 6-1로 물리쳤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승2패를 기록한 삼성은 KIA를 따돌리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정규리그 1위 팀 kt wiz와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됐다.

최근 3년 연속 플레이오프를 치른 삼성은 2024년에는 LG 트윈스를 3승 1패로 꺾었고 지난해에는 한화 이글스에 2승 3패로 패했다. 올해는 다시 KIA를 따돌리고 한국시리즈에 올라 우승을 노리게 됐다.

반면 KIA(전신 해태 포함)는 한국시리즈에 12번 올라 12번 우승한 가을야구 최강팀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악연을 끊지 못했다.

KIA는 1987년과 1989년 플레이오프에서는 승리했으나 1990년과 1992년, 2002년, 2003년에 이어 올해까지 5연속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다.

최종 5차전은 초반부터 양 팀 선발투수 아리엘 후라도와 애덤 올러의 희비가 엇갈리며 승부가 결정됐다. 삼성은 1회말 김지찬이 좌전안타, 구자욱은 볼넷을 골라 만든 2사 1, 2루 기회에서 노장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때려 1-0으로 앞섰다.

2회에는 삼성 타선이 매서운 집중력을 보이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다.

1사 후 강민호가 좌전안타로 포문을 열자 이재현이 좌중간 2루타를 날려 2, 3루를 만든 뒤 김지찬이 2타점 우전 적시타를 터뜨려 3-0으로 앞섰다.

기세가 오른 삼성은 김지찬이 2루 도루에 성공하자 박승규가 우전 안타로 뒤를 받쳐 4-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KIA는 3회초 하주석이 실책으로 살아 나간 뒤 박재현의 우월 3루타로 홈을 밟아 1점을 만회했다.

이후 잠잠하던 경기는 6회 들어 삼성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었다.

삼성은 6회말 2사 2루에서 김지찬이 친 타구가 KIA 좌익수 해럴드 카스트로의 판단 실수로 3루타가 되면서 귀중한 추가점을 뽑았다.

이어 타석에 나선 박승규가 다시 좌전안타를 때려 6-1로 달아나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삼성은 선발 후라도는 7이닝 동안 삼진 3개를 곁들이며 5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KIA 타선을 봉쇄했다. 8회에는 이승민이 9회에는 원태인이 차례로 올라 경기를 마무리했다.

타선에서는 김지찬이 4타수 3안타 3타점 3득점으로 활약했고 박승규는 3타수 2안타 2타점, 최형우도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2차전에 이어 5차전에서도 승리투수가 된 후라도는 기자단 투표에서 79표 중 47표를 획득해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KIA는 선발 올러가 2이닝 동안 6안타를 맞고 4실점 해 패전투수가 됐다.

3회부터 구원 등판한 양현종은 5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았으나 6회말 어설픈 수비 탓에 2실점 하고 내려갔다.

후라도 공략에 실패한 KIA는 타선이 5안타에 그쳤다. 김도영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삼성과 kt의 한국시리즈 1차전은 3일 오후 6시 30분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KIA 이범호 감독 "최선 다한 선수들 고마워"
"양현종 팔 푸는 시간 필요해 바로 못올려"


KIA 이범호 감독. 연합뉴스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아쉽게 패한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은 선수들의 투혼을 칭찬하면서도 내년 시즌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범호 감독은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5차전에서 1-6으로 패한 뒤 "최선을 다했다. 긴 시간 동안 포스트시즌을 치른 선수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선발투수 애덤 올러의 초반 부진에 대해선 "올러가 계속 맞을 지는 알 수 없었다"며 "양현종이 바로 준비했지만 팔을 푸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현종이 (3회부터) 잘 막아줘서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종 5차전에서 패하면서 시즌을 마친 이 감독은 "선수들 고생 많았고 가진 것 이상으로 했다"며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다시) 도전하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한 "올해는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며 "선수들의 실력을 더욱 키워서 내년에는 한국시리즈에 갈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주SK 아쉬운 무승부… 연패 탈출 만족
K리그1 34라운드 파이널B 포항 원정경기 1-1


제주 네게바(오른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SK는 1일 오후 2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34라운드 파이널B 원정 경기에서 네게바의 선제골에도 전반 추가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주SK는 31라운드부터 계속되는 3연패를 끊는데 만족하면서 승점 1점을 추가, 7위 수성에는 성공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제주SK였다. 전반 30분 네게바가 왼쪽 측면에서 아크 정면 외곽까지 상대 수비수들을 차례로 따돌린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연결하며 환상적인 득점에 성공했다.

앞서 역습 과정에서 절호의 득점 찬스를 놓쳤던 네게바는 완벽한 만회에 성공하며 리그 10호골 고지에 오르며 코스타 감독에게 안기며 득점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후 포항의 공세가 거세졌지만 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을 앞세워 잘 막아냈다. 하지만 제주SK는 토비아스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포항 완델손의 돌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 파울을 범했고, 전반전 추가시간 10분 키커로 나선 완델손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제주SK는 후반 9분 치나리와 김신진을 빼고 최병욱과 신상은을 교체 투입했다. 순간 스피드와 공간 돌파가 뛰어난 최병욱은 역습 과정에서 침투 패스에 따라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제주SK는 이후 경기 막판 공세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골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고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제주SK는 12승11무11패 승점 47점으로 리그 7위를 지켜냈다. 제주SK는 오는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리그 최하위 광주를 상대로 35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위영석기자

서귀포서 무료 서커스 공연 '프렌즈'
서귀포시스포츠클럽 27~28일… 저글링 체험도

서귀포시스포츠클럽이 날다스튜디오와 공동으로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무료 서커스 공연 '프렌즈'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7일과 28일 서귀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센터 내 공연장을 활용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렌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커스'를 주제로, 오랜 세월 서커스 광대로 살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다. 노인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연결, 함께 쌓아가는 추억의 소중함을 전한다.

특히 저글링과 공중 퍼포먼스, 오브제와 장난감을 활용한 시적인 무대를 통해 웃음과 외로움, 그리고 삶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이틀간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저글링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공연 관람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회차별로 208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저글링 체험은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회차별 20명씩 모집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 마감이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스포츠클럽(064-738-5330)으로 하면 된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지역창업페스티벌 × 스타트업위크 JOIN2026

모두의창업 in JEJU

2026. 11. 5. Thu 13:30 ~



창업수다 : 모두의 Talk

리얼 창업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선배창업가, 멘토와 함께
'창업'에 대해 Talk Talk!

쉐라톤 제주 호텔 2F 서브홀3

LiNK-UP DAY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초기스타트업의 IR을 현장에서!
* 2026 스타트업 열전 연계

쉐라톤 제주 호텔 8F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OREA START UP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